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3

발광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의 말씀을 밝힘

성경: 빌 2:15-16, 1:6

[빌 2:15-16]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¹⁶⁾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빌 1:6]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I.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 빌 2:15.

- A. ‘나무랄 데 없고’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묘사하며, ‘순결하여’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묘사한다.
- B. 흠 없는 것은 순결함과 나무랄 데 없음을 다 합한 특성이다.
- C. 빌립보서 2장 15 절은 믿는 이들이 세상의 발광체들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빌 2: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 1. ‘발광체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햇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들을 가리킨다.
- 2.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능, 곧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다 — 비교 행 9:3, 22:6, 26:13, 벨후 1:4.

[행 9: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추므로,

[행 22:6]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두루 비추므로,

[행 26:13] 왕이시여, 정오에 내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벨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a.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해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발광체들이 되었다.
- b.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내적 운행(빌 2:13)에 협력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엡 5:14).

[빌 2: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엡 5:14]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 c. 사실상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빛도 갖고 있지 않다.
 - d.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근원에서 받은 빛을 다만 반사하는 것이다.
 - e. 그리스도는 빛, 곧 참된 해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다.
3. 궁극적으로, 구속받고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인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발광체가 될 것이다 — 계 21:11, 24 상.
- [계 21: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계 21: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4. 주님에게는 그리스도를 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발광체들인 한 무리의 성도들이 필요하다.

II.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 빌 2:16.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A.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빛을 비춘다 — 빌 2:16 상.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 1. 우리는 살아 있는 영을 갖고 성경에 올 때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씀을 누릴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공급받고 강화되고 살아나고 빛 비춤 받고 신선하게 되고 양육받고 씻겨질 것이다.
- 2.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밝히고 제시하고 제공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 3. 빌립보서 2장 16 절과 17 절은 함께 취해야 한다.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 a. 이는 17 절의 믿음이 16 절의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체험적으로 믿음의 희생 제물과 관련된다.

4. 이 절들에 있는 바울의 개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 벨후 3:10, 12.
 [벨후 3: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 버릴 것입니다.
 [벨후 3: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5. 현시대는 사람의 날(고전 4:3)이고, 오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날일 것이다.
 [고전 4:3]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6.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가지실 것이다. 사람의 날에 믿는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면 바울은 믿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이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주님의 날'(살전 5:2, 살후 2:2, 고전 1:8, 고후 1:14, 빌 1:6), 혹은 '그날'(딤후 1:18)이라고 불린다.
 [살전 5:2]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살후 2: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
 [고전 1:8]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고후 1:14]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 1:6]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딤후 1:18]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베소에서 얼마나 여러 방향으로 나를 섬겼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8. 그날에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받을 것이다 — 고후 5:10, 마 25:19-30.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 25:19-30]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²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아와 '주인님,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하자, ⁽²¹⁾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²²⁾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아와 '주인님, 나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하자, ⁽²³⁾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²⁴⁾ 그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아와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²⁵⁾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하자, ⁽²⁶⁾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²⁷⁾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²⁸⁾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²⁹⁾ 있는 사람마다 더 받아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³⁰⁾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B. “내가 …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 빌 2:16 하.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1. 베드로후서 3 장 10 절 상 반절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12 절 상 반절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벧후 3: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 버릴 것입니다.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2. 주님의 날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주로 경고이다.

3. 신약에서 주님의 날은 주로 주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 고전 1:8, 5:5, 고후 1:14, 딤후 4:8, 살전 5:2.

[고전 1:8]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5:5]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1:14]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살전 5:2]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다 — 벧후 3:10 상, 12 상.

[벧후 3: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 버릴 것입니다.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5. ‘날’은 주로 통치적인 다루심을 위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다.

6.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날’인데, 이것은 사람이 심판하기 때문이다.

7. 주님께서 오신 후에는 ‘주님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파루시아(와 그때의 모든 심판으로 시작하여, 크고 흰 보좌에서 사람들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치게 될 것이다 — 계 20:11-15.
 [계 20:11-15]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버려서, 그 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¹²⁾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¹³⁾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¹⁴⁾ 죽음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 못입니다. ⁽¹⁵⁾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8. 주님의 파루시아는 이기는 성도들이 삼 년 반의 대환난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때 시작될 것이다 — 계 12:5-6.
 [계 12:5-6]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⁶⁾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9. 대환난의 끝에,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계 10:1),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대부분의 살아 있는 믿는 이들과 함께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고전 15:52, 살전 4:16-17, 계 14:14-16).
 [계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고전 15:52]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살전 4:16-17]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계 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¹⁵⁾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¹⁶⁾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10. 이후에, 모든 믿는 이가 공중에 있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분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고후 5:10.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11.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하실 것이다 — 계 19:7-8.
 [계 19:7-8]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12. 직후에 주님은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신부와 함께 땅으로 오셔서(슥 14:4-5, 유 14, 살전 3:13)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패배시키실 것이다.

[슥 14:4-5]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⁵⁾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같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유 14] 아담의 칠 대손 에녹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이어서 사탄은 결박되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다 — 계 20:1-3.

[계 20:1-3]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²⁾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³⁾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14. 주님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 마 25:31-46, 율 3:2, 계 20:4-6.

[마 25:31-46]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³²⁾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³³⁾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입니다. ⁽³⁴⁾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³⁵⁾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³⁶⁾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오.’ ⁽³⁷⁾ 그때 의인들이 왕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접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³⁸⁾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³⁹⁾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 보았습니까?’ ⁽⁴⁰⁾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오.’ ⁽⁴¹⁾ 그 후에 왕이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거라. ⁽⁴²⁾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⁴³⁾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⁴⁴⁾ 그때 그들도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도 섬기지 않았다고 하십니까?’⁽⁴⁵⁾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⁴⁶⁾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욘 3:2]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 /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 이는 그들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린 탓이라. 그들은 내 땅을 나누었고

[계 20:4-6]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⁵⁾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⁶⁾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